

大學教養課程의 運營改善에 관한 研究*

夫 鍾 哲

目 次

- | | |
|------------------|---------------------|
| I. 序 | III. 教養課程 運營改善의 當爲性 |
| II. 産業社會와 大學의 機能 | IV. 教養課程 運營의 基本方向 |
| 1. 現代社會의 特徵 | 1. 教養教育의 改善方向 |
| 2. 大學教育의 機能 | 2. 教養科目의 開發 |

I. 序

元來 人間教育의 根本的 目標은 知, 德, 體를 涵養하여 豊富한 人間을 길러 내는데 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學校(大學)란 젊은이로 하여금 調和된 人格(harmonious personality)을 갖추게 하는 곳일 뿐 專門家를 養成하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特殊한 知識의 習得이 아닌 獨立의인 思考와 判斷力을 갖게 하는 普偏的인 能力의 啓發을 積極적인 目標로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本 研究은 우리나라 大學의 教養課程이 안고 있는 問題點들을 根本的으로 改革하기 위한 具體的이고 固定的인 方案을 提示한다기 보다 시시각각으로 變化되어 가고 있는 教育環境은 設사 完備한 教育改善方案을 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얼마가지 않아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될 環境에 처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나라 大學의 教養課程도 이러한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問題意識下에서 改善方向을 摸索하려는 것이다.

高度로 發達 分化된 現代産業社會에서 教育의 根本理念은 많이 퇴색된 감이 있다. 즉 大學은 社會라는 巨大한 機械를 원만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작은 部品을 量産하기 위한 機關으로 밖에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現實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教育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가 되고 있으며, 이의 解決을 위하여 大部分이 國家들이 많은 努力을 기울여 온 것 또한 事實이다.

* 이 論文은 1983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우리나라에서도 解放以後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教育革新을 위하여 民主教育이니 國籍있는 教育이니 또는 人間教育이니 하는 많은 새로운 方向을 찾아 보려는 努力을 하였으나 이렇다 할 成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現實이다.

또한 教育革新을 위하여 學制를 고치거나 入試制度를 바꾸어 보거나 教課書를 改編하는 등 여러가지 方法을 模索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現實이 말해 주듯이 이러한 制度나 運營上의 變更만으로는 根本的인 解決策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過去의 體驗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것은 우리의 教育이 지역적인 目標에만 神經을 쓴 결과 教育의 根本的인 目標를 등한시 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의 教育은 教育의 根本理念을 되돌아 보고, 知育, 德育, 體育의 均衡된 발전으로 서만 教育遂行의 元來의 目的을 이룰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앞으로의 教養教育의 方向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基本方向을 提示하려 한다.

II. 産業社會와 大學의 機能

1. 産業社會의 特徵

大學의 教育이 社會生活에 必要한 專門的인 知識과 技能을 가르치고 폭넓은 教養과 健全한 人格을 具備한 知性人的 輩出을 追求한다는 그 本質的 目標은 時代가 흐르고 社會가 變遷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時代가 變化하고 社會가 바뀔에 따라 大學教育의 強調點과 그 內容은 달라지게 마련이고 또한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時代와 社會의 變動에 無感覺하거나 鈍感한 大學教育은 時代錯誤的인 人間밖에 輩出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人間은 社會生活에 있어서 落伍者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教育을 받은 사람은 社會發展에 貢獻하기는 커녕 阻害要因이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時代와 社會에 適合한 大學教育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 속에 處하고 있는 社會的 狀況의 性格을 正確하게 分析하고 把握할 必要가 있다. 주어진 社會的 現實의 要請이 무엇인가를 分明히 把握하고 거기에 副應하는 教育을 追求할 때 비로서 大學은 時代와 社會에 適合한 教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는 어떠한 社會며 그 두드러진 特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社會는 急速하게 産業化 되어가고 있는 社會이다. 그러면 産業社會란 어떠한 特徵을 지니고 있는가? 勿論 産業社會의 特徵은 여러가지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나 産業社會 속

에서 大學敎育이 遂行해야 할 여러가지의 責任과 役割을 前提로 하여 생각한다면 다음의 세가지를 産業社會의 두드러진 特徵으로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産業社會에 있어서는 職業이 高度로 分化되고 거기에 따라서 專門化된다. 그렇기 때문에 各者가 特定한 職業에 從事하기 위해서는 그 職業이 要求하는 專門的인 知識과 技能을 具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現代의 産業社會는 機能社會이며 그러한 社會에 있어서는 專門的 知識과 技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無用之物이요 나아가서는 社會의 負擔이 되는 存在가 된다.

둘째, 産業社會는 急速하게 變化하는 社會다.

産業社會 以前の 前近代의인 農耕社會는 거의 變化가 없는 停滯의 社會였으며, 설령 變化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일어 났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過去에 있어서는 몇 世紀가 걸려야 일어날 수 있었던 變化가 現代의 産業社會에 있어서는 단 5년이나 10년 사이에 일어나고 만다. 이와 같이 急速하고 急激한 社會的 變化는 現代의 産業社會의 두드러진 特徵이다.

셋째, 産業社會에 있어서는 職業이 專門化되어 自身이 從事하는 分野에만 關心이 集中되는 傾向에 흐르게 되고 그 結果 各者의 專攻分野가 한 部分으로 속하는 社會와 文化, 人生에 關係된 包括的이고 深奧한 知性的 世界에 대해서는 理解가 缺如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排斥하는 反知性主義(Anti-intellectualism)에 떨어지고 말게 된다.

2. 大學敎育의 機能

위에서 밝힌 産業社會의 이러한 特徵이 大學敎育에 대해서 어떠한 機能을 要求하는지에 대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첫째, 産業社會에 있어서는 職業의 分化와 專門化는 大學의 機能에 革命的 變化를 強要하고 있다.

大學의 發展過程을 살펴 볼 때 産業社會가 大學의 敎育에 커다란 變革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1852년 Cardinal Newman은 The Idea University를 著述 했는데 이 著書에서 Newman은 그가 修學했던 옥스포드大學의 敎育의 影響을 받아 大學敎育은 純粹한 人文知識의 供給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Newman은 그보다 250년 앞서 知識의 實用性을 力說한 Francis Bacon에 反旗를 들고 有用한 知識이란 쓰레기더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知識은 그 自體로서 目的이 될 수 있으며, 모든 知識은 그것이 참된 知識이라면 그 自體가 곧 報酬라고 主張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大學의 目的은 學生들을 敎育시키는데 있는 것이지 研究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研究는 다른 研究機關이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또

大學教育의 目的이 教養人을 培養함에 있음을 力說하여 大學의 教育은 社會의 知性的 品格을 높이고, 民衆의 教養을 복돋우고, 國家의 趣向을 淨化하고, 大衆의 熱狂主義에 參된 原理를 세워 주고, 大衆의 熱望에 確固한 目的을 提供하고, 政治的 權力的 行使를 圓滑하게 하고, 私生活에 있어서의 人間關係를 세련되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C. Newman이 이렇게 大學의 理念과 機能을 아름답게 描寫하고 있을 때 西歐世界에 있어서는 이미 民主的, 產業的, 科學的 革命이 進行되고 있었으며, 獨逸의 大學들이 새로운 모델이 이 되어가고 있었다. 科學이 道德이나 哲學에 代身하고 研究가 教授(teaching)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에는 Abraham Flexner가 그의 著書 Universities: American English German에서 現代의 大學은 주어진 時代의 全般的인 社會組織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다. 大學은 隔離된 어떤 것, 歷史的인 어떤 것, 혹은 무엇인가 새로운 勢力과 影響에 可能한 限 따르지 않은 어떤 것이 아니라, 反對로 大學은 時代의 表現이요, 또한 現在와 未來에 미치는 影響이다 라고 主張하였다.

1930年頃の 大學은 大學이 한 部分으로 속해 있는 社會의 發展과 보조를 맞추어 놀라운 變化를 이룩했다. 大學에는 새로운 學科들이 繼續 늘어나게 되었고 雨後竹筍처럼 수 없이 많은 研究所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때의 大學은 社會의 要求에 關心을 가지게 되었으며, Newman이 말하는 自然秩序속의 永遠한 眞理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發見하게 되었으며, 教養人이 아니라 專門家를 輩出하게 되었다.

A. Flexner의 말을 빌리면 大學은 知識의 追求와 問題의 解決과 眞正 높은 水準에 있어서의 人間의 成就와 訓練에 대한 批判的 理解에 意識的으로 貢獻하는 機關이 되었다.

그러나 A. Flexner가 1930년에 現代의 大學에 대하여 著述하고 있는 동안 美國의 大學들은 벌써 거기서 부터 멀리 떠나서 새로운 形態로 發展해 가고 있었다. 이것은 Newman이 1852년에 낡은 옥스포드大學을 理想化하고 있을 때 그 理想化는 이미 살아져가고 있었던 것과 恰似했던 것과 같다. 여하튼 美國의 大學은 A. Flexner가 現代의 大學으로 理解했던 文理科大學의 大學院과 醫科大學과 法科大學을 中心으로 한 專門職大學院과 研究所를 中核으로 하는 大學形態로 부터는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大學의 構造와 現代의, 產業社會와 같이 巨大하고 複雜하게 되어 multiversity로 發展해 가고 있었다. 오늘의 multiversity는 現代產業社會의 거의 모든 分野에 該當하는 學科들을 包含하는 複雜하고 巨大한 機構로 變化하고 말았다. 이와같은 形態의 大學은 傳統的인 古典的 大學의 理念에 執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비스 스테이션(service station)과도 같은 것이라는 批判도 받고 있으나, 그것은 人間이 任意的으로 選擇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쩔수 없이 생겨난 產業社會의 產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大學의 變遷은 職業이 分化되고 또한 專門化되는 產業社會에 있어서 大學教育의 一次的 機能이 무엇인가를 分明하게 提示해 주고 있다. 產業社會에 있어서의 大學教育

은 學生들에게 그들이 社會에서 從事하게 될 職業이 要請하는 專門의인 知識과 技能을 우선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教育의 內容을 選定하고 構成함에 있어서도 社會의 要求가 果然 무엇이며 社會가 안고 있는 問題가 무엇인지를 항상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大學은 社會속에서 社會와 相互依存關係에 의하여 成長發展하는 存在이지 社會와 떨어져서 또는 社會를 超越해서 있는 象牙塔의 存在가 아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產業社會의 大學은 社會속에서 進行되고 있는 狀況을 敏感하게 把握하고 거기에 대해 迅速하게 對應해야만 大學의 責任과 役割을 充實하게 遂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產業社會에 있어서는 社會變動이 急速하고 또한 急激하기 때문에 現代의 產業社會를 急變하는 社會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產業社會의 이러한 急速하고 急激한 變動은 教育을 위해서는 매우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르고 極甚한 社會的 變動은 知識 特히 實用的인 知識의 壽命이 매우 짧다는 것을 意味한다. 바꾸어 말하면 自然科學이나 工學 또는 社會科學의 知識이 단 10년도 못가서 時代에 뒤떨어진 낡은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專門職에 從事하는 사람은 大學을 卒業하고 나서도 社會變化에 보조를 맞추어 繼續 새로운 知識을 追求하고 吸收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社會에서 落伍者가 될 것은 勿論 無用之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教育方法에 대해서 하나의 重大한 問題를 提起한다. 다시 말해서 學生들이 既存의 知識을 機械的으로 暗記했다가 그것을 되살려서 試驗紙에 옮겨써서 學點을 받게 하는 式의 教授法을 가지고는 變動하는 社會의 새로운 環境에 能動的이고 創造的으로 適應할 수 있는 教育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傳統的인 注入式 教授法에 있어서는 機械的인 暗記가 있을 뿐 理解와 思考가 거의 없다. 理解와 思考가 없이 創意성과 應用性을 期待하기가 困難할 뿐만아니라 機械的인 暗記는 도리어 創意力과 應用力을 말살해 버리는 結果를 招來할 可能性이 더욱 높다.

學生들의 創意的이고 應用的인 能力을 開發하는 教育을 하기 위해서는 既成品的인 答을 機械的으로 傳達하고 그것을 暗記시킬 것이 아니라 學生들로 하여금 스스로 探究하고, 思考하고, 理解하도록 刺戟하지 않으면 안된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學生들로 하여금 自律的인 學習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부딪치게 되는 疑問의 解答을 同僚學友들과 또는 教授와의 討論과 相談속에서 解決하는 教授法을 模索해야 할 것이다.

教授 역시 既存의 知識을 그대로 學生들에게 傳達할 것이 아니라 自己自身の 獨自的 理解와 解釋과 應用을 加味하여 傳達하므로써 學生들의 思考力과 創造力을 刺戟하고 作動시키므로써 높은 成就動機를 賦與하여야 할 것이다. Alfred N. Whitehead가 그의 論文 “大學과 그 機能(Universities and Their Function)”에서 使用한 表現에 따르면 大學은 知識을 傳達하되 想像力(imaginatively)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教授法에서 重要한 것은 教授가 既存

또는 새로운 知識을 맹목적으로 傳達하는 것이 아니라 學生들이 주어진 分野에 대한 學問의 基本的構造에 대한 理解와 知識을 追求하는 方法 즉 공부하는 方法을 教授로 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準備를 갖춘 사람은 계속해서 스스로 必要한 知識을 探究하고 吸收할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써 社會變動에 對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教授法의 또하나의 長點은 學生들로 하여금 주어진 授業時間內에 注入式 教授法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량의 學習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教授가 注入式 教授法을 利用하여 一時間의 授業時間에 傳達할 수 있는 知識의 量은 극히 制限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學生들에 의한 自律學習은 훨씬 많은 분량의 學習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知識의 洪水시대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莫大한 量의 知識을 吸收하고 消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現實的 要求에 副應하기 위해서 傳統的인 注入式 教授法에 의해서는 不可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自律的 學習方法을 中心으로 하는 教授法에 의해서 培養된 創意성과 應用力을 具備한 人材들은 우리나라의 發展을 위해서 가장 貴한 存在들이다. 이와 같은 人材가 없이는 우리의 産業은 계속 成長發展할 수 없고, 새로운 開發과 創意를 다투는 치열한 國際競爭에서 살아 남고 勝利를 爭取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人材를 키우는 想像력과 豊富한 教授는 돈으로는 그 價値를 評價할 수 없는 貴重한 存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人材와 教授는 國土를 防衛하는 軍인에 못지 않게 重要한 存在이다. 國家는 이러한 人材를 育成하는데 投資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教育投資야 말로 가장 利得이 높은 投資가 될 것이다.

세째, 産業社會속에 있어서의 反知性的인 極端的 職業主義傾向은 專門職이 要求하는 專門的인 知識과 技能을 大學에서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이 極端에 흐르면 그로 因해 빠지게 될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事實을 警告해 주고 있다.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大學은 專門的인 知識의 必要性을 強調하다가 마침내 教養과 學問의 純粹理論의 重要性을 無視하여 專門職이 要求하는 實用的이며 道具的 理論과 知識의 供給에만 사로 잡혀서 大學이 一種의 專修學院으로 轉落해 버릴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極端的 職業主義 觀點에서 볼 때 教養教育은 高等學校의 教育을 되풀이하는 時間浪費로 밖에 보이지 않고, 隣接學問에 의한 知的 視野의 擴大나 原理的 學問에 의한 理論的 深化를 學問的 脫線으로 排斥하고 狹少하고 特殊화된 專攻學科에만 置重하는 孤立主義에 떨어지고 말게 된다. 이와 같은 極端的 職業主義와 學問的 孤立主義에 떨어진 大學教育은 創意성과 批判能力은 말할것도 없고 價値觀과 倫理的 責任性 마저도 缺如된 機能人만을 輩出하게 된다. 産業社會의 危險과 悲劇은 專門的 知識과 技能을 가진 盲目的 技能人은 많지만 폭넓은 教養과 專門的 知識을 兼備한 人材가 貴하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Whithead의 다음과 같은 말의 깊은 意味를 진지하게 吟味해 볼 必

要件이 있다. 教養은 活潑한 思想의 活動이며 人間的 感情과 美에 대한 感受性이다. 斷片的인 知識은 教養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다. 單純히 많은 知識을 가지고 있는 人間은 地上에서 가장 쓸모 없는 存在다. 그러므로 大學이 輩出해야 할 人材는 教養과 어떤 特殊한 分野의 專門的 知識을 同時에 具備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大學에서 副專攻이나 自由選擇科目을 開設運營하고 있는 重要한 理由中的 하나가 바로 이러한 極端的 職業主義와 學問的 孤立主義를 슬기롭게 克服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勿論 學問의 分野와 性格에 따라서 여러가지 方面에서 妥當性 與否가 研究 檢討할 余地는 있겠으나 數學이나 基礎科學을 소홀리하고 創意性을 가진 自然科學者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經濟原論과 理論을 소홀리하고 經商系學科의 教育이 充實히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人文教育과 教養教育을 소홀리하고 專門的 知識과 技能을 道具로 使用할 수 있는 倫理的 責任性을 지닌 知性人을 教育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產業社會의 大學이 한편에서는 學生들에게 오늘날 專門職이 要求하는 專門的 知識을 供給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Newman이 理想으로 그렸던 古典的 大學의 機能 즉 教養人을 培養하는 機能도 同時에 遂行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急速하게 進行되고 있는 工業化가 그대로 계속되고 이러한 工業化의 結果 우리나라 國民에게 참된 福祉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大學이 이 두가지 機能을 調和있게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大學의 世界는 複雜하고 多樣하기 때문에 教科課程의 構成에 대한 一律的이고 劃一的인 方案을 내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大學이 產業社會에 있어서 맡은바 責務를 充實하고 効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大學은 產業社會의 挑戰을 敏感하게 표착하여 거기에 能動的으로 應戰하려는 姿勢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意志가 大學教育의 모든 分野에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III. 教養課程 運營改善의 當爲性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은 1945年 解放과 同時에 밀물처럼 들어온 미국의 實用主義的 教育觀과 教育體系가 普及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產業化過程에서 發生되는 高級人力에 대한 需要의 急增으로 大學教育은 大部分이 4年後 企業이나 그 밖의 職場을 求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相對로 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의 背景과 要請에 副應하므로써 우리나라의 高等教育機關인 大學自體가 심오한 學問을 研究하여 指導者의 人格을 기른다는 本來의 教育理念은 理論에 不過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變化된 環境에서도 大學을 이끌어 가는 많은 責任者들이 아직도 밖으로는 在來의

大學教育의 理念을 내세우고 實際로는 理念에 벗어나는 教育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念과 實際의 乘離는 理論 없는 實踐 또는 無責任한 政策을 낳게 하는 原因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大學人口의 急激한 增加가 招來한 知識의 商品化 傾向, 各 分野의 學問에서의 思想의 缺如는 大學生들로 하여금 專門技術의 習得, 그리고 大學을 媒介로한 就業에 만 學習의 意味를 찾도록 誘導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現象이다.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생각할 때 大學의 문을 들어서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行爲와 思考의 價値이 中等教育의 過程에서 이미 決定되어 버린다는 事實을 前提로 할 때 果然大學教育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反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要求하는 것은 大象의 價値觀을 빠속 깊이 反映하며 그들의 知的 探究의 獨自의 能力을 大學入試를 위한 高된 試練 때문에 이미 마비되어 버린 것을 쉽게 發見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大學 밖의 教育的, 社會的, 諸要因들이 大學教育의 方法과 方向에 重大한 問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與件들을 考慮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大學에서 實施하고 있는 教養教育의 課程은 大學教育의 理念이 가장 直接的으로 表現되는 重要한 契機로 여겨진다. 大學은 지금까지 教養教育의 目標을 莫然하게 全人具備 또는 人格完成으로 規定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道德的, 人格的 成長을 試圖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專攻學問으로 들어가기 위한 幅 넓은 基礎를 마련해 주려는데 있었었는데, 오늘날 各 大學에서의 教養教育課程에 대한 一般 大學生들의 냉담하고 被動的인 態度를 바꾸기 위하여 여러가지 反省과 改革論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人間으로써 갖추어야 할 道德的, 人格的인 바탕은 大學에 들어오기 오래전에 그들이 이미 거처온 家庭, 學校, 社會的 環境에 의하여 形成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勿論 大學이 提供하는 教養教育課程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人間觀, 보다 客觀的인 社會觀, 보다 넓은 世界觀으로 나가도록 誘導하는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誘導過程은 直接的 行便에 의한것도 아니고 間接的인 것이거나 論理的, 自然的 成長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오늘날 大學生들이 無感覺한 道德意識 또는 회의적인 國家意識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떠한 道德律이나 國家觀의 當爲性을 注入하려고 만든 教科課程에서 脫皮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社會적으로 야기되는 道德的 諸門題 또는 國際關係에서 일어나는 分爭처럼 自然的으로 發生하는 狀況을 把握하고 分析할 수 있는 論理的, 知的, 手段을 紹介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길이라고 믿어진다.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이 教養教育을 다시 問題삼아야 하는 理由는 1945年의 美國大學들이 直面했던 문제와 그 후 켈럼비아, 하버드大學의 一般教育(general education) 改革案이 나오게 된 動機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獨特하고 特殊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大學에 있어서 教養教育의 理念이 現代 學問의 方法에 비추어 볼 때 莫然한 道德的, 人間的 目標을 止揚하

고 論理的, 自然的 成長에 의한 間接的 誘導過程으로 轉換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固有한 몇가지의 根據가 있다.

첫째, 우리가 傳統的으로 지너온 道德的, 社會的 狀況에 대한 當爲論的 注入式 教育이 아니라 論理的, 概念的 分析이 科學을 發展시키고 民主的 社會를 建設하는 低力이 된다고 믿는데 있다. 우리는 人間問題 및 社會現實에 대한 道德的이고 實際的이며 直接的인 處方을 提示하는 것 보다 直接的으로는 效果가 적은것 같은 論理的, 概念的 分析을 존중하도록 誘導하는 것이 文化的 深層의 精神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어진다. 이것은 道德的 要請이나 實際的 効用을 떠나 自然의 事實과 論理的 必然에 승복하는 純粹한 客觀精神에 대한 根本的 教育課程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試圖하는 教養教育의 改善은 現代學問과 思想이 우리의 現實과 實際에서 乘離된 것이라는 點을 反省하러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現實이 大學의 象牙塔에서 더득한 理論으로 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點을 개탄하기도 한다. 事實 政府와 學生들 사이에 繼續되어온 주로 解放以後 다루어 온 理論과 現實사이의 間隔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間隔을 더욱더 넓혀 온 우리나라 大學教育에서의 知識의 商品化 傾向 專攻 學問으로 부터의 思想의 排除는 根本的으로 고칠 수 없었던 千편일률적인 教養教育의 過程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大學의 知的 風土는 學問과 思想, 理論과 實際 사이의 끊임 없는 補整關係를 망각한 데에서 나타난 現象이다. 원래 思想과 理論은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現實이나 實際에 비추어 새로운 概念體系로 發展되어야 하고 또한 發展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教養教育은 理論과 實際, 思想과 現實의 끊임 없는 補完的 關係를 形成해 나가갈 수 있도록 論理的 方法을 더득 시키는데에서 模索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教育現實이 위에서 提示한 方向으로 쉽게 바뀔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 改善案은 우리나라 大學의 教養課程이 나아가야할 最少限度의 方向을 設定하고 거기에 따라 무엇을 어떤 方向으로 改善해야 하겠는가를 模索하러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내 놓고 이 案이 어느 程度 實現可能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改善해야 할지를 研究하기 위한 것이 本 研究의 攄극적인 目標가 된다.

IV. 教養課程 運營의 基本方向

現代產業社會의 急激한 變遷과 科學技術의 發達, 學問의 細分化 등은 大學에 있어서의 教養 科目의 擴大를 수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教養科目의 擴大는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教養教育 本來의 뜻을 不分明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大學에서의 教養教育課程을 別途로 設

置運營하는데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大學에서의 教養教育科目은 果然 어떠한 內容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問題가 提起되고, 이것은 다시 專門的 職業人 즉 大學卒業者의 教養이란 概念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反省의 問題로 나타난다. 大學에서의 教養科目은 專攻教育을 통한 各分野의 專門人 養成에 先行하여 보다 幅이 넓은 人間教育이라는 側面에서 첫째, 올바른 價値判斷과 歷史的 眼目, 둘째 社會現象에 대한 洞察力을 가지는 良識있는 教養人으로 養成하며, 셋째 社會生活에서 直面하는 諸般 問題들을 獨自의으로 處理하고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自身의 見解를 어느 程度 明確하게 表現할 수 있는 能力, 基本的인 計算, 基本的인 情報 혹은 文書의 解讀과 理解, 그리고 더 나아가서 自身이 처해 있는 位置와 立場을 認識하며 無數히 쏟아지는 各種情報과 서로 相反되는 價値를 選擇할 수 있는 思考能力을 開發할 수 있는 科目들이 教養科目에 주로 包含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情報의 水準과 自己 생각을 表現할 수 있는 言語, 合理的 思考를 追求하는데 必要한 論理學 우리가 살고 있는 社會를 理解 시킬 수 있는 歷史 및 社會現象에 대한 教科目, 한 社會의 傳統과 體驗을 알려 주는 文學, 基礎的 數學知識이나 自然現象에 대한 理解와 知識을 提供하는 自然科學分野 등의 科目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教養教育을 強調하는 나머지 大學課程에서는 一般教養을 中心으로 하고 專攻教育은 大學院課程에서 集中的으로 修學하도록 하는 美國의 教育方式을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現實的 與件下에서는 아직은 適合하지 않으며, 大學課程에서 보다 充實한 專攻教育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는 現實的 與件을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1. 教養教育의 改善方向

새로운 教養教育은 理論과 實際, 現實과 思想의 補完的 關係를 形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方向에서 模索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意識에서는 最少限度로 다음과 같은 方向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大學의 教養教育에서는 宗教와 哲學分野를 幅 넓게 理解시키므로써 學生들로 하여금 올바른 人生觀과 世界觀을 定立하여 人間의 삶과 關係되는 모든 領域을 綜合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해야 한다. 오늘날 學生들이 當面하고 있는 根本問題는 이들이 느끼고 또한 現社會가 안고 있는 諸般 問題를 解決해 줄 수 있는 根本的 指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現實이다. 學生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思想的 體系를 模索하고 스스로의 번민과 未來에 대한 解消해 나아가기에는 現實社會가 너무나 複雜하고 高度로 細分化되어 있는 것이다. 이의 解決方案으로 北美의 많은 大學에서는 Transcendental Meditation (T.M瞑想法)을 教科目으로 設定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哲學과 宗教라는 講座의 設定을 통하여 Meditation이나 神과 같은 超宗教, 超宗派의 으로 우리의 根本과 生의 問題 解決에 接近하는 方法이므로 어느 宗教, 宗教人, 非宗教人을 莫論하고 누구나 배우고 體驗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教養教育에 큰 役割을 期待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元來 宗教란 “마루宗”字와 “가르칠教”字로써 마루란 建物의 가장 높고 重要的 部分을 意味하는 것으로 宗教를 풀이해서 말하면 「가장 높은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教養教育을 위한 教科課程에는 宗教에 關聯된 科目을 設講하고 學生들의 趣向에 따라 適切히 選擇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國學에 대한 보다 幅넓고 깊이 있는 研究를 바탕으로 하는 教育體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歷史와 傳統속에서 오랜 學問과 우리 固有의 文化圈을 形成해 왔다. 中國 文化에서 부터 由來된 東洋의 思想과 이를 消化하여 우리의 獨特한 文化圈을 形成한 祖上들의 슬기를 되찾아 西洋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새로이 開發할 必要性이 切實한 實情이다. 즉 西洋의 哲學思想의 體系에서 벗어나 傳統的인 우리의 哲學과 思想을 體系의 으로 研究할 때가 온 것이다. 物質主義의 限界性을 일찍부터 깨닫기 시작한 先進諸國에서는 오래전 부터 東洋思想을 研究하기 시작했고, 例를 들어 佛教文化에 있어서도 學問으로서의 佛教哲學은 찬란한 佛教文化를 꽃피웠던 우리나라 보다 美國이나 西歐의 여러나라들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形便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固有한 哲學과 思想을 오늘에 再照明해 볼 수 있는 우리의 文化中興을 위한 主體性의 探究, 鄉土文化의 理解를 통해서 傳統文化에 뿌리를 둔 새로운 文化創造의 能力을 函養 하므로써 審美의 人間性을 創造할 수 있을 것이다.

2. 教養科目의 開發

가. 耽羅文化史

1) 學習目標

最近에 와서 進증한 學術的 資源을 간직하고 있는 濟州島에 대한 學問的 觀心과 熱意가 점차 드높아 가고 있다. 그리고 研究實績 또한 꽤 쌓여가고 있으나 그 研究가 體系의이고 組織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研究實績을 收合하고 分析 概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精神文化의 開發과 民族文化의 育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民族文化의 樹立이 긴요한 만큼 그 一環으로 이 고장의 耽羅文化의 潮流를 把握하는 일도 무엇보다도 必要的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單純한 傳統文化의 復活을 意味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耽羅文化 自體의 固有性을 지니면서 韓國史的인, 나아가서 世界史的인 普偏性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現代人의 感覺과 生活에 알맞고, 現代人의 精神生活에 活力素

가 되는 文化일 때 그 存在價値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傳統文化의 批判的 繼承이 不可缺한 일이다.

濟州島는 地政學의 特殊與件으로 그 文化 또한 주변 文化와는 異質의 特異性을 간직해 오고 있다. 이러한 文化의 特異性을 주변 文化와 比較, 分析, 檢討하면서 耽羅文化를 繼承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耽羅文化史의 學習目標인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自身을 풍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耽羅文化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새로운 文化創造의 基礎가 될 것이다.

2) 學習範圍(內容)

本 講座는 耽羅의 개벽과 先史文化로 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耽羅文化의 形成과 發展過程을 韓國史의인, 나아가서 世界史의인 觀點에서 조망하는데 있다. 時代的으로 크게 先史, 古代, 中世, 近代 및 現代로 區分하고, 地域的으로는 耽羅 즉 濟州島를 中心으로 하되 항상 주변지역과 그 民族을 망라하여 相互間의 關係도 規明해 나간다. 耽羅文化라고 해서 單獨의이고 斷片的으로 取扱하는 것 보다는 그 文化가 發生하고 形成되며 發展하게 된 過程을 주변지역과 相互關連지으며 그 性格 및 特性을 把握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다.

3) 學習方法

歷史學에서 使用되고 있는 基本的인 概念과 接近方法 및 理論的인 틀을 紹介하므로써 學生들로 하여금 스스로 耽羅文化를 分析하고 理解하는 視角을 培養하는데 力點을 두며, 또한 講義主題에 대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研究內容과 結果를 紹介하므로써 學生 스스로의 學習과 耽羅文化에 대한 올바른 批判力을 기를수 있도록 한다.

나. 現代韓國論

1) 學習目標

現代의 社會와 文化를 歐美學問의 視角에서 보는 習性으로 부터 脫皮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固有한 歷史意識에서 보는 習性을 培養하기 위하여 첫째 西歐文化속에서 普遍性和 特殊性을 區別한 뒤에 그 普遍性만을 受容할 것이며 둘째 韓國人에게 固有한 傳統文化를 傳承하고 韓國社會의 時代的 特殊性을 把握하며, 세계, 獨自的이면서도 普遍性있는 主體的 立場을 定立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學生들로 하여금 韓國의 現實을 斷片的이고 非體系의인 把握에서 오는 否定的인 性向을 피하도록 하고 未來의 主人으로서의 資質을 갖추도록 한다.

2) 學習內容

韓國의 政治發展, 統一·安保問題, 韓國經濟의 現況과 課題, 韓國社會의 發展과 變動, 韓國의 精神文化의 現實 등을 講義한다.

3) 學習方法

各 分野別 專攻教授들이 1週 乃至 2週씩 講義한다.

다. 宗教와 人間

1) 學習目標

첫째, 宗教는 信仰의 對象인가 眞理의 具現인가? 즉 信仰과 眞理의 問題와 그 葛藤을 核心的 問題를 다루고, 둘째 宗教的 眞理와 哲學的 眞理의 本質을 規明한다. 셋째 人間의 位置와 人間 觀의 類型을 展開한다.

2) 學習範圍(內容)

- ① 信仰의 대상으로서의 宗教 : 信仰의 本質解明
- ② 眞理의 具現으로서의 宗教
- ③ 文化의 대상으로서의 宗教
- ④ 現實批判으로서의 宗教 : 現實과 宗教와의 根原的 關係와 求緩으로서의 宗教의 意味
- ⑤ 社會 속에서의 宗教 : 社會와 宗教의 關係, 社會에서의 宗教의 役割
- ⑥ 宗教와 藝術 : 宗教와 藝術의 相互關係 解明
- ⑦ 여러가지 宗教의 構造 : 宗教現象에 대한 構造主義的 分析 및 宗教와 미신의 差異

Summar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s for the
Cultural Curriculum in University**

Boo Jong-chul

The cultural education in university cultivates the ability to judge synthetically the whole areas pertaining to human life by widely understanding the religion, the philosophy, and the stud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by setting up the right outlook on life and the view of social life.

In these days, our students are faced the fundamental problems which can not present the basic directions to solve the whole matters having their feeling and current society. Therefore, they try to find a solution for their thinking world and ravel out the feeling of uneasiness for the future, but the present society is more complicated and fractionized.

The cures for them are as follows:

1. It sets up religious lectures in cultural studies, and than enables them to choose favorite subjects among them.
2. It should make preparations for the deucation system based on a wide and profound research for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urel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and develop our unique culture area.

Accordingly, we should preserve classics to illuniate the philosophy and thoughts native to ours. Also, we should create esthetic humanity by cultivation the abilities for the new cultural creation which are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research of identity and the comprehension of the folk literature for the cultural revival.